左비전 右비전

(행21:1~16)

7.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左비전 右비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비전이 있는데, 좌(左)비전이 있고 우(右)비전이 있다는 얘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들 말합니다.

근데 세계를 통틀어 여러 방면, 재산의 규모라든지 그가 오너로 돼있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등등, 이런 걸 다 따져서 빌 게이츠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단 한 사람을 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인 손 정의라고 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인터넷과 연관된 업계의 제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분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고, 또 일본 제일의 부자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성공 에피소드가 참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한 기자가 이 손 정의 회장님에게 성공의 비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 정의 씨가 백지를 하나 꺼내서 산을 그립니다, 그리고 산 둘레의 산기슭에 여러 개의 원을 그려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좁은 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늘 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결국에는 큰 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제일 부자, 손 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성공하게 된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확신 위에서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그 두 번째 요소가 '확실한 목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열아홉 살 때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요, 지금 60세가 다 돼가는 나이인데 50이 넘도록 열아홉 살에 그려놓은 로드맵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자처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목표를 향한 '끈질긴 추진력'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위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과 꿈을 내 스스로 갖는 것은 사탄의 전세방에 입주하는 것이다.'
계약기간은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왜 사탄의 전세방이라고 얘길 하느냐?
여호와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돼요.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잡아두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세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전과 꿈을 가져라, 비전과 꿈은 영혼의 자식이고 궁극적인 성공의 청사진이다!’
비전과 꿈은 영혼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세상 위에서 이루겠다는 비전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자식이 돼버리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다.’
이 세상 위,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과 꿈을 나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사탄의 전세방에 드는 것이고, 사탄의 자식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비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게 사탄의 전세방에 드는 것이고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비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비전이 이상한 비전입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의 귀환 길에 들어서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 장에서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항해하기 전에 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하는 대목에서도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여러 군데 다니던 중에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해주셨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지중해 항해를 다 끝마치고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앞에 베니게의 두로라고 하는데, 베니게가 지중해 연안 쪽을 말합니다.
두로에서 배가 짐을 부리는 동안 일주일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동안에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찾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겪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두로의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 집에 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팔레스타인 온 땅에 기근이 임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리스도인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가보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예언을 하는데, 또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띠의 임자가 결박돼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만류를 하게 되고, 바울과 함께 3차 전도여행을 했던 누가 등 일행이 함께 만류를 합니다.
이때 뿌리치면서 한 말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는 결의를 보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강행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내다보고 있는 장래의 상황',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일 때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게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행정당국에 죄수로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 세상에서 명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비전과 관계된 모든 언급을 다 동원해도, 결박되고 죄수로 행정당국에 넘겨지게 될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한 이해로서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전을 이해할 수도 포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진 비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인생에 갖고 계시는 비전이에요, 사도바울의 인생에 대해 갖고 있는 주님 자신의 비전입니다, 성령님의 비전이에요.
바울의 인생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서 나온 비전이 아니라, 바울 바깥에 계신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라는 게 마음속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

꾸 만류합니다.
그럴 때 이걸 뿌리치고 강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보일 때, 그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만 우리에게 할당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소원을 비전화해서 본다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세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마음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귀의 전세방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비전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긍정이 어떻게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갖고 계신 비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신 성령님의 비전, 주님의 비전 안에는 좌 비전이 있고 우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바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좌 비전은 뭐고, 우 비전은 뭐냐?
손 정의 회장님이 19세 때 그린 로드맵 안에 나타났던 비전들, '20세 때까지는 이름을 떨치고, 30세 때까지는 자금을 마련하고, 40세 때까지는 전부를 다 쏟아 붓고, 50세 때까지는 비즈니스의 모델을 완성하고, 60세 때에는 경영권을 넘겨준다',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右)비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비전, 그 기준에 입각해서 형통이라고 보여 지는 비전, 이게 '우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보여 질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형통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이런 비전들, 우 비전이에요.
한 마디로, 세상 기준으로 잘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좌(左)비전은 뭡니까?
세상 기준으로 안 돼가는 겁니다, 불통처럼 보입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에게 갖고 계신 성령님의 비전이 좌 비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결박하게 되고, 행정당국에 죄수로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좌 비전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무엇입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을.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서 팔려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보고 출발하십니다.
이 십자가사건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아버지의 비전입니다.
주님께는 비전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때그때 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아버지께서 십자가라는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좌 비전 중에 극좌 비전인 것이에요, 가장 힘들고 안 좋은 비전입니다, 주님 자신 개인에게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시려면 이 극좌적 비전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갖고 계신 좌 비전과 우 비전을 동시에 수용해야 됩니다.
좌 비전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 비전을 수용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아니요, 우 비전도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좌 비전 못지않게 큰 문제에요, 우 비전이 더 염려스러운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된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라고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내게 주어질 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으려면 좌 비전과 우 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좌 비전은 우리가 생래적으로 싫어하게끔 돼있습니다.

환란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처럼 보이는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는 비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좌 비전을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성공처럼 보이고 잘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기준으로 형통처럼 여겨지는 우 비전이 내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우 비전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좌 비전을 싫어하지 말고 우 비전을 좋아하지 말아야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 비전에 해당되는 걸 하나 이루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야말로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우 비전 쪽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좌 비전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좌 비전을 싫어한다는 것은 마음이 묶여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원수가 미워서 밤새 증오에 시달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원수를 품고 원수에게 딸려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있어서 밤새도록 애인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는 것과 원수가 미워서 잠을 못 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하나는 좌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고, 하나는 우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좌, 우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돼갖고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마음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허공에다 마음을 둡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대해서라면, 오직 마음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주님에게만 두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주님에게만 둘 때, 내가 이루고 싶은 우 비전에 마음을 두고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마음을 머물고 있을 때에, 하늘의 바람이 들어오고 하늘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하늘로 만족해진 기쁨의 상태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 비전이 이루어져도 우 비전에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하늘로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좌 비전이 제시될 때도 미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능히 좌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떨 때? 십자가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그 십자가에 얹혀 진 약속대로 하늘의 기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을 배불려주실 때, 그 만족감 안에서 좌 비전을 뚫고나갈 수 있고, 우 비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때그때 우리의 매순간마다 외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비전이 있습니다.
좌 비전이 있고 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둡니다.
그럴 때, 능히 외칠 수 있습니다.
좌 비전과 우 비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령님의 비전과 뜻이 내 인생에서 순간순간 그때그때 이루어지이다!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처소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지어낸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마음을 둠으로써 내 인생을 향한 성령님의 좌, 우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게 하시고,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하늘을 분깃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